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6690.90	↑ 코스닥	1220.26
	(+49.88)		(+4.68)
↓ 금리 (연고채 3년)	3.525	↑ 환율 (원/달러)	1477.80
	(-0.004)		(+4.20)



## 정부차원 자본시장 투자... 나라의 富 쌓는다

### 대한민국 '국부펀드' 채비

국제금융·해외 기반시설 등 투자 국가위험 분산·회피 등 활용할 듯 재경부, 이르면 연내 조성안 마련

우리 정부도 미 달러화 등의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해외 기반시설 등에 투자해 나라의 부(富)를 늘려가고 후대에 물려준다는 것. 지구촌에 금융위기 등이 불어닥칠 시 이 같은 펀드가 국가위험 분산·회피(헤지)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국부펀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홀딩스·싱가포르투자청 등이 대표적이다. 한 국가 내 2개의 펀드로, 외환보유액이 투자 재원이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펀드의 경우, 석유 수출로 거둬들인 현물 수익을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산유국 이란 역시 '국가개발기금'이라는 이름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계 중이다. 이르면 연내 뼈대와 투자처, 운용방향 등을 담은 세부 조성안이 공표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2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민경설 혁신성장실장 주제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유관 부처·기관, 전략산업분야 유망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부펀드의 설립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간·공공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공



제주함 진수식 29일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열린 제주함 진수식에서 진영승 함참의장(왼쪽 여섯번째),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군

식적으로 개시한 것. 참석자들은 일단 정부가 그간 정책펀드·정책금융을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청산을 전제로 만든 '한시적 펀드'인 탓에 innate 자본 형태의 기능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산할 필요 없는 국부펀드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면에 계속> /세종=김민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삼성, 가전생산 외주 전환 글로벌 생산전략 '대전환'

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 등 외주 냉장고·에어컨 등 직접생산 유지 동남아 거점 말레이 공장도 폐쇄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생산 라인 일부를 외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외주 전환 여부와 대상 품목, 생산 지역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검토 배경에는 가전 사업의 구조적 수익성 위기와 글로벌 생산 전략 재편이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 가전 사업은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원가와 물류비 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되며 더욱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삼성전자 공식 IR에 따르면 VD·DA 사업부는 2024년 4분기 합산 매출 14조 4000억 원에 영업이익 2000억 원에 그쳤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임직원 경영설명회에서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에서도 하이센스·TCL·샤오미 등 현지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며 삼성전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점유율은 각각 3.6%, 0.4%, 0.4%에 그친 상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는 전자레

인지·식기세척기 등 저수익 소형 가전의 외주 전환을 검토하는 반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백색가전과 비스포크 시리즈는 직접 생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누가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권에 위치한 80여 개 협력사들은 주로 부품과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구조로, 완제품 전체를 외부에 맡기는 이번 외주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으나 이번 외주화 검토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생산 전략 차원에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1989년부터 동남아 가전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말레이시아 공장이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한 독일 플렉트그룹을 중심으로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확대하고 AI 가전·구독서비스·B2B 사업도 강화한다. 이번 외주화 검토는 단순 생산 방식 조정을 넘어, 가전 사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공정위, 쿠광 총수 김범석 지정 '규제 대상'

동생 김유석씨 부사장으로 재직 '친족의 경영 참여 없을 것' 불충족 쿠광, 행정소송으로 소명 예고

그간 미국 국적과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던 김범석 쿠광Inc 의장(사진)이 결국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쿠광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

광의 동일인을 법원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정위는 쿠광의 국내 친족회사가 없고 사익 편취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광Inc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특히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명문화하며 쿠광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4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5월 4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최신 뉴스는 메트로경제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 메트로 한줄뉴스



▲靑 "AI·국제통상 등 전문가 공무원 확대...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강훈식 "개방형 임용직 연봉상한 없애고 퇴직 후 취업제한 완화" /사진 뉴스스

▲민주당, 6·3 지방선거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중앙선대위 구성  
▲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위 마무리 즉시 특검 신속히 추진"

▲국힘, 與 '한예중 광주 이전' 법안에 "학생 미래까지 대표에 이용"  
▲'1억 공천현금' 김경, 첫 재판서 혐의 인정...강선우는 '억울'

### 社告

#### 메트로경제 기자모집 오늘마감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1부(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메트로빌딩)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